

대학생의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의 관계 연구

—성, 전공, 학년 변인을 중심으로

황순희 |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지원센터, 전임대우강사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8615). 아울러 한국교양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년 춘계학술대회(2013년 6월 14일, 서울대학교, 주제: '글로벌 시대 한국 교양교육의 과제와 전망')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장, 수정·보완한 연구임을 밝힌다.
- ** 이 논문을 심사하고 귀한 지적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심화연구가 요구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미진한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이 연구는 공과대학생(engineering students) 학습자의 스피치(= 공적 말하기: speech, public speaking) 성향 및 특성과 관련된 제반 변인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스피치 운영 능력은 다양한 변인과 상관이 있다. 가령 개인의 성격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비롯하여 외부 자극 요인, 전달내용 요인, 훈련 요인, 선천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안선경·허경호, 2004; 이효영, 2011; 전인숙, 2004). 또한, 스피치 교육도 개인의 스피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과대학생의 효과적인 스피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리더십 역량(leadership)과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두 가지 주요 변인인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ve apprehension: McCroskey, 1993) 그리고 의사소통 성향(communicative traits: Infante et al., 2003; Infante & Rancer, 1982)¹을 각각 추출하여 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

1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 성향'은 의사소통 분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에

하고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 간의 상관성 연구가 요구되는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모든 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이다. 전 세계 경영의 화두 중 하나는 ‘리더십’으로 리더십의 선결요건은 의사소통 (communication)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보경, 2006). 리더의 의사소통, 스피치 능력이 조직 구성원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3대 요소(비전 구축,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에 필수적인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간주된다(박재현, 2007). 전통적인 관점의 리더십은 리더의 개념을 집단의 최상위에 있는 관리자로 정의했으나 최근 들어 그 개념이 바뀌어 리더란 통제,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외부환경과 조직 구성원 사이의 중재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더십은 의사소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 불안은 다양한 환경에서 스피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의 경우 특별히 학업(academic) 및 대인관계(interpersonal) 영역을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의 성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McCroskey *et al.*, 1989). 의사소통 불안은 가령 학점(GPA: grade point average), 중도 탈락(dropouts)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8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년간의 추적 연구결과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중도 탈락률이 높고 학점이 낮았다.

셋째, 의사소통 성향이란 “개인이 메시지(전언)를 주고 받으면서 보이는 차별화된 성향”²으로 정의된다. 의사소통 성향은 일반적으로 논쟁 성향

속한다.

2 “...an abstraction constructed to account for enduring consistencies and differ-

(argumentativeness trait)과 언어적 공격 성향(verbal aggressiveness trait)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논쟁 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력, 학습능력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황순희, 2013)에서 공대생의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 성향(그중 논쟁 성향)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負的相關, negative relationship)가 확인되었다. 즉 의사소통 불안이 높을수록 논쟁 성향은 낮으며 의사소통 불안이 낮을수록 논쟁 성향은 높다.

반면 국내의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학생의 리더십과 스피치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서미경, 2010)는 있으나 아직 충분히 누적된 연구가 없고 특히 공과대학생의 리더십과 스피치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과대학생과 타전공생(인문대생)의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의사소통 성향 인식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리더십, 스피치를 포함한 소프트 스킬(soft skill)³ 교과목 설계와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공과대학생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가설로 다음 두 가지를 전제하였다. 첫째,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 불안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리더십 역량은 의사소통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성향으로 간주되는 논쟁 성향과 리더십 역량은 정적 상관(正的相關, positive correlation)이 있을 것이며 부정적, 비판적 성향으로 간주되는 언어적 공격 성향과

ences in message-sending and message-receiving behaviors among individuals” (Infante *et al.*, 2003: 77).

3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란 기업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조직’ 등의 일련의 경영전문지식은 ‘하드 스킬(Hard Skill)’이라 한다(<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7&docId=16145>).

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부산시 소재 P 대학교 재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공과대학생 323명과 공과대학생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인문대생 131명으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리더십 역량,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 연구를 간략히 검토한다.

1. 리더십 역량

리더십 역량 및 리더십 교육 전반에 관한 고찰(황미영, 2009)을 통해 국내 리더십 분야의 연구 경향은 크게 교육학 외 분야 연구와 교육학 분야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 동향의 검토를 통해 대부분의 연구가 어떤 변인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었는지, 어떤 결과를 축적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⁴.

4 리더십 연구에 관해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본고의 핵심 논점이 아니므로 지면 관계상 간단히 표로 요약한다. 또한, 자세한 참고문헌 역시 본고의 핵심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표 1. 교육학 외 분야의 리더십 연구 동향

연구 경향	세부 유형	관심 대상과 특징
① 전통적 리더십 이론에 입각한 연구	㉠ 특성이론 (trait theory)	1.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 지도자들이 갖춘 특성을 밝히고자 함 2. 인물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낸 그들의 특징을 일반인의 특징과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코자 함
	㉡ 행동이론 (behavioral theory)	리더의 어떤 행동유형이 복합적인 상황에 놓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
	㉢ 상황이론	
②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		1. 용어가 의미하듯이 비전제시를 통해 구성원 개인의 가치, 윤리의식, 사고의 기준, 장기 목표 등 개인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핵심임 2.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도전적 비전을 제시하여 그들의 내적 신념체계를 변화시켜 과업의 성과와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리더십 3. 대부분의 연구는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함 ⁵⁾
③ 최근 진화된 리더십에 입각한 연구	㉠ 전략적 리더십	1. 새로운 리더십의 요구로 등장한 진화된 리더십 2. 주로 군지휘관들의 전략적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몰입, 조직 시민행동 등을 연구
	㉡ 카리스마 리더십	조직 시민행동과 조직몰입, 정서 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
	㉢ 셀프 리더십	주로 리더십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셀프 리더십의 매개효과 등을 분석
	㉣ 서번트(servant) 리더십	리더십이 기업 경영자, 중간 관리자, 목회자, 호텔 직원 등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첫째, 교육학 외 분야의 리더십 연구들은 대체로 리더십 이론의 발달 경향을 반영하면서 수행되었다. <표 1>은 교육학 외 분야에서 수행된 리더십 연구의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 연구는 크게 ① 전통적 리더십 이론에 입각한 연구, ② 변혁적 리더십, ③ 최근 진화된 리더십에 입각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변혁적 리더십이 리더의 의사소통 기술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이 분야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 주조조정, 신뢰유형, 시민행동, 구성원 만족, 교사효능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처럼 변혁적 리더십의 적용은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와 과업성과에서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둘째, <표 2>는 교육학 분야에서 수행된 리더십 연구의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교육학 분야의 리더십 연구 동향

연구 경향	관심사 & 연구 결과
① 리더십의 현황과 실태를 규명하려는 연구 경향	1. 주로 성별, 연령, 성적수준 등 개인의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리더십의 수준을 규명함 2. 따라서 집단 간(예: 영재와 평재)의 리더십 수준을 비교, 분석함 ⁶
②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려는 연구 경향	1. 주로 영재, 일반 초중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 창의성, 정서지능, 사회 성숙도, 임원활동여부, 친구관계, 부모의 지지여부,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등과 같은 변인들과 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함 2. 이들 연구는 대부분 창의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리더십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일관된 연구 결과를 제시함
③ 리더십 육성의 필요성과 인식을 기초로 리더십 측정도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 특정 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적 효과를 논의한 연구 경향	1.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리더십이 향상되고 리더십 생활기술과 리더십 인식 수준이 향상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함 2.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사회성숙도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됨

교육학 분야 리더십 연구는 리더십 이론의 발달별 수행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특히 리더십 육성에 관심을 두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리더십의 수준, 리더십과 관련 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이 분야 연구로 대학생의 리더십 특성을 성차, 학년차를 통해 알아보고 리더십과 사고양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윤경미·김정섭, 2008)도 있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리더십은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과 사고양식 간의 유관성이

6 대체로 영재들의 리더십 수준이 일반 학생들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나 성별, 연령에 따른 리더십 수준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지 못했다.

확인되었다. 이정순(2006)은 청소년 리더십의 하위영역으로 의사결정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조직관리, 인간관계, 그룹활동, 학습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더십은 성별, 학업성적, 성취기대수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청소년활동 참여 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최창욱(2001)은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고 청소년 리더십생활기술의 효과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7가지 하위영역의 총 30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를 구안하였다. 한편 공학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수행한 진성희·성은모(2010)는 공대생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리더십 역량을 분석하고자 기업 현장의 경영진 27명과 공대생 288명을 대상으로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실천적 리더십 역량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공과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리더십 역량은 창의력, 다양성 수용력, 의사전달능력, 경청, 신뢰구축, 협업능력, 목표설정, 목표관리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교육학 분야 리더십 연구 고찰을 통해 리더십 기술의 구체화된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3>은 경영학과 교육학 분야 연구들 중 리더십과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표 3. 리더십과 의사소통의 관련성 연구

논문명	내 용
계형식 (2008)	리더십과 조직 내 의사소통 유형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이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
김보경 (2006)	서울 특급 호텔 중간관리자들의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주장
김지식 (2011)	농민조직 리더의 리더십과 스피치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함. 스피치능력이 리더십 유형과 조직 성과간의 관계에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
변계영 (2011)	중간 관리자가 자각하는 의사소통과 리더십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독단' 성향과 '과업에 대한 관심'이 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
손동윤 (2007)	리더십의 유형 및 의사소통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리더십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장영임 (2009)	변혁적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의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만 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허선영 (2012)	초등영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이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 및 리더십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힘

2.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불안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실제로 혹은 예상되는 공포나 불안의 정도'(McCroskey, 1993: 38)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시 불안을 경험할수록 심적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경험하는 공포나 불안 증상인 의사소통 불안은 현재까지 주로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언론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Buzz, 1980; Leary & Meadows, 1991; McCroskey, 1993; Turner, 1986; 최정훈 외, 1994; 이상 김평원,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정작 의사소통 불안과 관련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인 개인의 의사소통 불안 극복방법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은 언·(국)어 교육학, 응용언어학, 의사소통 분야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⁷⁾.

스피치 교육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불안 정도가 개인의 스피치 수행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소통 불안을 경험하거나 한 적이 있으며 특히 Richmond & McCroskey(1985)에 의하면 30,000명 중 20% 정도는 심각한 스피치 불안을 겪는다고 한다.

의사소통 불안은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 사고 정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기효능감, 자의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7 '스피치 불안(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은 2010년 12월 현재, 총 90여 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첫째,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변인 연구(심리학, 교육학 관점), 둘째, 불안 감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인지 행동적 접근, 심리 치료적 이론 기반), 셋째, 말하기 불안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연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서영진·전은주, 2010: 211).

특별히 공과대학생의 의사소통 불안은 타전공생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Lee & Lunsford, 2007; P'Rayan & Shetty, 2008). McCroskey(1993)의 측정 도구로 측정한 공대생의 의사소통 불안은 P'Rayan & Shetty(2008)에서 68.93점⁸, 김지심 외(2010)에서 75.5점, 황순희(2012)에서 67.24점, 황순희(2013)에서 66.71점으로 나타났다⁹. 반면 일반 계열생의 평균은 김은주(2003)에서 61.15점, 계열 구분없이 측정한 평균인 McCroskey(1993)에서 65.6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Paul(1966)의 PRCS(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스피치 불안을 측정한 서영진·전은주(2010)에 의하면 성별, 학업성취도에 의한 집단별 의사소통 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의사소통 성향

의사소통 성향에 관한 연구는 의사소통 불안에 관한 연구만큼이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의사소통 성향은 크게 ① 자기주장(assertiveness) 성향, ② 논쟁(argumentativeness) 성향, ③ 적대(hostility) 성향, ④ 언어적 공격 성향(verbal aggressivenes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¹⁰.

8 미국 대학생 40,000명(비공대생, 공대생 포함)을 대상으로 McCroskey(1993)로 의사소통 불안을 측정한 결과, 51점보다 작으면 불안 정도가 낮고, 65.6점이 평균, 80보다 크면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http://www.jamescmccroskey.com/measures/prca24.htm>).

9 이것은 공학인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적의 솔루션 개발자(problem solver)가 되도록 훈련받으며(황순희, 2011; Piirto, 2000; Seat *et al.*, 2001) 대부분 자기 주도적 학습과정을 거치므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덜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10 자세한 논의는 황순희(2013)을 참조하라.

표 4. 의사소통 성향의 유형과 의미

특성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기능	공격 대상
긍정적, 건설적 성향	자기주장 성향	논쟁 성향 (안정된 성향)	개인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관계를 강화	논쟁이 되는 이슈 자체
	→ 대인적으로 지배적, 우세하려는 경향			
부정적, 파괴적 성향	적대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	관계의 질을 감소시키거나 불만을 생성시킴	타인의 자아개념
	→ 좌절을 통해 학습되는 성향			

1) 논쟁 성향

논쟁 성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정의 이슈에 관해 옳고 그름의 근거나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을 공격하거나 반박하는 것을 좋아하는 안정적인 개인 성향이다(Infante & Rancer, 1982). 논쟁 성향은 대립적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의 논쟁에 대한 의지를 내포하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성향이다. 결과적으로 논쟁 성향은 전문적 지식과 역동성을 배양하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며 보다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성향으로 리더십 역량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 논쟁 성향은 건설적인 형태의 공격적 의사소통이며 언어적 공격 성향은 비생산적인 형태의 공격적 의사소통으로 간주된다. 성별에 따른 논쟁 성향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논쟁적이라고 보고(범기수 외, 2008)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인 박세환·허경호(2001)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논쟁 성향이 높다고 하였고 이 결과는 황순희(2013)에서도 확인되었다.

2) 언어적 공격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은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자아개념(self-concept),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자신감, 성격, 지적 능력 등을 공격하는 공격적 특성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 시 특정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 또는 주장 대신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입장과 더불어 자아개념을 함께 공격하는 것이다. 언어적 공격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상대의 반박을 마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언어적 공격 성향은 좌절을 통해 학습되는 적대 성향의 하위개념이다.

3) 논쟁 성향과 언어적 공격 성향

논쟁 성향과 언어적 공격 성향 모두 공격적 형태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Infante & Rancer, 1982). 그러나 두 개념은 공격의 위치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논쟁적 성향은 이슈에 대한 타인의 입장을 공격하는 것이고 언어적 공격 성향은 이슈에 대한 타인의 입장 대신에 또는 그것에 추가하여 타인의 자아개념을 공격하는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 성향 중 논쟁 성향은 개인의 스피치 능력, 학습능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정혜진·최화열, 2010; 한주리 외, 2007; 황순희, 2013). 즉 논쟁 성향이 높은 사람이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력,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 성향

개인의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 성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을 저해하는 의사소통 불안은 논쟁 성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정혜진·최화열, 2010; 황순희, 2013). 이것은 자신의 입장을 잘 표현하는 논쟁 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상황에서 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본 장은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을 기술한다.

1. 연구 문제

대학생의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접근하려는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의사소통 성향은 주요 구성요소인 논쟁 성향과 언어적 공격 성향으로 나뉘 조사하였다.

[연구 문제 1]: 대학생 학습자의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논쟁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위의 네 가지 변인은 학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전공별, 학년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대상과 절차

표 5. 연구 대상의 성별, 전공별, 학년별 분포

성별	전공		빈도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학생	전공	공대생	빈도	71	55	65	83	274
			전체 %	22.0%	17.0%	20.1%	25.7%	84.8%
		인문대생	빈도	14	28	4	3	49
			전체 %	4.3%	8.7%	1.2%	.9%	15.2%
	전체	빈도	85	83	69	86	323	
		전체 %	26.3%	25.7%	21.4%	26.6%	100.0%	

여학생	전공	공대생	빈도	10	15	11	13	49
			전체 %	7.6%	11.5%	8.4%	9.9%	37.4%
		인문대생	빈도	15	37	13	17	82
			전체 %	11.5%	28.2%	9.9%	13.0%	62.6%
	전체		빈도	25	52	24	30	131
			전체 %	19.1%	39.7%	18.3%	22.9%	100.0%
전체	전공	공대생	빈도	81	70	76	96	323
			전체 %	17.8%	15.4%	16.7%	21.1%	71.1%
		인문대생	빈도	29	65	17	20	131
			전체 %	6.4%	14.3%	3.7%	4.4%	28.9%
	전체		빈도	110	135	93	116	454
			전체 %	24.2%	29.7%	20.5%	25.6%	100.0%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소재 P 대학교 재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설문은 ① 리더십, ② 의사소통 불안, ③ 의사소통 성향 측정을 위해 구성하여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표 5>와 같다. 성별, 전공별 구성은 남학생이 71.14%, 여학생이 28.85%이며 공대생이 71.14%, 인문대생이 28.85%, 학년별로는 4학년(25.6%), 3학년(20.5%), 2학년(29.7%), 1학년(24.2%)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공대생 표본은 기계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산업공학과, 재료공학부 등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한 6개 학과 학생으로 구성하였다.

3. 주요 변인 측정과 설문 구성

주요 변인들은 자가 진단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설문 항목은 다음의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1) 리더십 역량

리더십 역량 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최창욱(2001)이 제시한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¹¹이다. 이 도구는 커뮤니케이션기술 2문항, 의사결정기술 5문항, 관계기술 7문항, 학습능력기술 4문항, 조직관리기술 3문항, 자기이해기술 6문항, 그룹활동기술 3문항 등 총 7개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등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2)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불안 측정을 위해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인 자기 보고식(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PRCA-24)¹²으로 구성된 McCroskey(1993)가 개발한 의사소통 불안 척도(PRCA-24¹²)를 이용하였다. 구성 항목은 의사소통 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을 대화, 집단, 회의, 스피치의 4가지로 나눠 총 24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의사소통 성향 (I) : 논쟁 성향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Martin(1999)을 원용하고 Infante & Gorden(1985)에 사용된 척도, 김정기·김달환(2008), 정혜진·최화열(2010)에 사용된 10개 문항을 논쟁 성향 측정에 사용하였으며 각각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11 이 척도는 Dormody & Seevers(1995), Morris(1996), Seevers & Dormody(1995), Seevers *et al.*(1995), Wingenbach(1995) 등이 이미 사용한 문항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12 <http://www.jamescmccroskey.com/measures/prca24.htm>.

4) 의사소통 성향 (II) : 언어적 공격 성향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Martin(1999)을 인용하고 김정기·김달환(2008), 정혜진·최화열(2010)에 사용된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언어적 공격 성향을 측정하였고 각각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4. 설문 분석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 결과는 기초적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 등을 통해 개별항목에 대한 전체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논쟁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의 점수 분포를 기술통계를 통해 제시한다. 또한, 각 요인이 성별, 전공별(공대, 인문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리고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연구 문제에 따른 검증결과를 논의한다.

1. 리더십 역량

1) 성별 비교

표 6. 세부 유형별 리더십의 성별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세부 유형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리더십 합계	남학생	323	3.7139	.43885	2.689	.007
	여학생	131	3.5957	.38651		
커뮤니케이션기술	남학생	323	3.6502	.68585	.182	.856
	여학생	131	3.6374	.65649		
의사결정기술	남학생	323	3.7356	.54174	2.101	.036
	여학생	131	3.6183	.53173		
인간관계기술	남학생	323	3.8156	.53111	2.420	.016
	여학생	131	3.6957	.45466		
학습능력기술	남학생	323	3.6138	.56970	2.101	.036
	여학생	131	3.4924	.52709		
조직관리기술	남학생	323	3.4706	.55425	2.862	.004
	여학생	131	3.3053	.56544		
자기이해기술	남학생	323	3.7480	.55102	2.137	.033
	여학생	131	3.6260	.55158		
그룹활동기술	남학생	323	3.7802	.54871	2.180	.030
	여학생	131	3.6590	.50547		

〈표 6〉은 성별 리더십 역량의 기술통계 결과이다¹³. 리더십 합계 평균은 남학생이 3.713점으로 여학생(3.59점)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윤경미·김정섭(2008)과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7가지 세부 항목 평균 역시 남학생이 모든 세부 항목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러한 리더십의 성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13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t-test 검증 결과는 두 개의 표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두 가지 내용을 담은 한 개의 표로 제시한다.

결과 성별에 따른 리더십 합계는 t값이 2.689, p값이 0.007로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또한, 세부 항목별 성별 차는 ‘커뮤니케이션기술’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유의하다(p= 0.036, 0.016, 0.036, 0.004, 0.033, 0.030, < 0.05).

2) 전공별 비교

표 7. 세부 유형별 리더십의 전공별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세부 유형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리더십 합계	공대생	323	3.6718	.43081	-.624	.533
	인문대생	131	3.6995	.41973		
커뮤니케이션기술	공대생	323	3.6269	.68433	-.966	.335
	인문대생	131	3.6947	.65801		
의사결정기술	공대생	323	3.6904	.54716	-.702	.483
	인문대생	131	3.7298	.52619		
인간관계기술	공대생	323	3.7744	.51648	-.428	.669
	인문대생	131	3.7972	.50460		
학습능력기술	공대생	323	3.5681	.55449	-.635	.526
	인문대생	131	3.6050	.57425		
조직관리기술	공대생	323	3.4355	.56057	.749	.454
	인문대생	131	3.3919	.56611		
자기이해기술	공대생	323	3.7077	.55283	-.304	.761
	인문대생	131	3.7252	.55655		
그룹활동기술	공대생	323	3.7337	.54473	-.713	.477
	인문대생	131	3.7735	.52504		

〈표 7〉은 전공별 리더십 합계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리더십 평균은 공대생, 인문대생이 각각 3.671점, 3.699점이다. 또한, 전공별 리더십의 7가지 세부 항목 평균은 ‘조직관리기술’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인문대생이 공대생보다 높다.

이러한 리더십의 전공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전공에 따른 리더십은 t값이 -.624, p= .5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또한, 리더십의 세부 항목에 대한 전공별 차이는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커서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3) 학년별 비교

세부 유형별 리더십의 학년별 기술통계는 <표 8>과 같다. 리더십 합계는 4학년이 3.770점으로 다른 학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윤경미·김정섭(2008)과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리더십의 7가지 세부 유형별로도 4학년이 모든 항목에서 다른 학년보다 높았다.

이러한 학년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각각 0.016(리더십 합계), 세부 유형 중에서는 0.021(인간관계기술), 0.009(자기이해기술)로 이들 항목과 관련하여 학년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세부 유형별 리더십의 학년별 기술통계

세부 유형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리더십 합계	1학년	3.6115	110	.45832
	2학년	3.6333	135	.42293
	3학년	3.7146	93	.35860
	4학년	3.7707	116	.43902
	합계	3.6798	454	.42737
커뮤니케이션기술	1학년	110	3.5636	.74535
	2학년	135	3.6185	.64994
	3학년	93	3.6774	.65792
	4학년	116	3.7328	.65086
	합계	454	3.6465	.67681

의사결정기술	1학년	110	3.6727	.57452
	2학년	135	3.6459	.52629
	3학년	93	3.7269	.52568
	4학년	116	3.7741	.53440
	합계	454	3.7018	.54091
인간관계기술	1학년	110	3.7013	.52517
	2학년	135	3.7291	.52279
	3학년	93	3.8157	.46510
	4학년	116	3.8892	.51009
	합계	454	3.7810	.51262
학습능력기술	1학년	110	3.5068	.61839
	2학년	135	3.5315	.57419
	3학년	93	3.6371	.52714
	4학년	116	3.6552	.49963
	합계	454	3.5787	.55987
조직관리기술	1학년	110	3.4242	.60225
	2학년	135	3.3926	.58145
	3학년	93	3.3763	.52296
	4학년	116	3.4943	.52839
	합계	454	3.4229	.56190
자기이해기술	1학년	110	3.6164	.56447
	2학년	135	3.6474	.54153
	3학년	93	3.7763	.50030
	4학년	116	3.8293	.57559
	합계	454	3.7128	.55335
그룹활동기술	1학년	110	3.6545	.60566
	2학년	135	3.7136	.51052
	3학년	93	3.7921	.48880
	4학년	116	3.8305	.53206
	합계	454	3.7452	.53885

또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Turkey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9>¹⁴와 같다. 사후 검정 결과 1학년은 4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리더십 차이를 보였고(유의확률 0.026로 $p < 0.05$) 다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세부 유형 중 ‘인간관계기술’ 항목은 1학년과 4학년(0.029), ‘자기이해기술’은 1학년과 4학년(0.019), 2학년과 4학년(0.045)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학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학년 별 리더십 차이 Turkey 사후분석 결과

항목	(I) 학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리더십 합계	1	4	-.15917*	0.05641	0.026	-0.3046	-0.0137
	4	1	.15917*	0.05641	0.026	0.0137	0.3046
인간관계기술	1	4	-.18786*	0.06772	0.029	-0.3625	-0.0132
	4	1	.18786*	0.06772	0.029	0.0132	0.3625
자기이해기술	1	4	-.21295*	0.07294	0.019	-0.401	-0.0249
	4	1	.21295*	0.07294	0.019	0.0249	0.401

*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의사소통 불안

1) 성별 비교

<표 10>은 성별에 따른 상황별 의사소통 불안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의사소통 불안 평균은 남학생이 65.18점으로 여학생(69.20점)보다 낮다.¹⁵ 상황별로도 모든 스피치 상황에서 여학생의 의사소통 불안이 높다. 이러한 의

14 지면 관계상 본고의 논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표로 제시한다.

15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불안은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높고(염영미, 2005)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서영진·전은주, 2010). 또한, 황순희(2012)에 의하면(그를, 스피치의 2가지 상황 불안만 측정) 공대생의 스피치 불안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통 불안의 성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불안 정도는 t값이 -2.713, $p=.0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또한, 스피치 세부 상황에서도 성별 차이는 대화 상황을 제외한 그룹, 회의, 스피치 상황에서 유의하다(p 값이 각각 0.000, 0.027, $0.072 < 0.05$).

표 10. 성별 의사소통 불안 정도의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상황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그룹	남학생	323	15.9567	4.50445	-4.774	.000
	여학생	131	18.1756	4.44536	-4.774	.000
회의	남학생	323	16.1207	4.22955	-2.221	.027
	여학생	131	17.0916	4.19606	-2.221	.027
대화	남학생	323	15.3158	4.43510	-.114	.910
	여학생	131	15.3664	3.95592	-.114	.910
스피치	남학생	323	17.7895	4.17538	-1.804	.072
	여학생	131	18.5725	4.22635	-1.804	.072
의사소통 불안 합계	남학생	323	65.1827	14.63640	-2.713	.007
	여학생	131	69.2061	13.48715	-2.713	.007

2) 전공별 비교

표 11. 전공별 의사소통 불안 정도의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상황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그룹	공대생	323	16.1950	4.61590	-2.951	.003
	인문대생	131	17.5878	4.40257		
회의	공대생	323	16.2260	4.26181	-1.382	.168
	인문대생	131	16.8321	4.16423		
대화	공대생	323	15.3715	4.39912	.320	.749
	인문대생	131	15.2290	4.05266		
스피치	공대생	323	17.8731	4.20654	-1.134	.257
	인문대생	131	18.3664	4.18092		

의사소통 불안 합계	공대생	323	65.6656	14.78583	-1.576	.116
	인문대생	131	68.0153	13.36642		

〈표 11〉은 전공별 의사소통 불안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의사소통 불안 평균은 전공별로 공대생이 65.66점으로 인문대생(68.10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소통 불안의 전공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값이 -1.576, p값이 0.1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또한, 세부 상황별 의사소통 불안은 ‘그룹’ 상황인 경우만 유의확률이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3) 학년별 비교

학년별 의사소통 불안 차이는 〈표 12〉와 같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64.50점으로 가장 낮다.¹⁶ 상황별로도 모든 상황에서 4학년의 의사소통 불안이 가장 낮다. 이러한 학년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3으로 학년 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울러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Turkey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3〉과 같다.

사후 검정 결과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사소통 불안의 차이를 보였고(유의 확률 각각 0.045, 0.010, 0.007로 $p < 0.05$) 다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6 참고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의 구성원은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과 같은 개인주의적 문화 구성원보다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것은 고맥락(high-context) 의사소통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불안이 나타난다(Gudykunst & Ting-Toomey(1988), 범기수 외 2008: 41에서 재인용).

표 12. 학년별 의사소통 불안 정도의 기술통계

상황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그룹	1학년	110	17.4455	4.39471
	2학년	135	16.7926	4.47730
	3학년	93	16.1075	4.60968
	4학년	116	15.9569	4.81012
	합계	454	16.5969	4.59418
회의	1학년	110	17.3727	3.90920
	2학년	135	16.2667	4.25178
	3학년	93	16.0108	4.51927
	4학년	116	15.9483	4.19699
	합계	454	16.4009	4.23823
대화	1학년	110	16.8455	4.23005
	2학년	135	14.8222	4.18039
	3학년	93	14.9140	4.41503
	4학년	116	14.8190	4.11698
	합계	454	15.3304	4.29807
스피치	1학년	110	18.9455	3.64688
	2학년	135	17.9407	4.29641
	3학년	93	17.3226	4.37920
	4학년	116	17.7759	4.33206
	합계	454	18.0154	4.20052
의사소통 불안 합계	1학년	110	70.6091	12.96367
	2학년	135	65.8222	14.37341
	3학년	93	64.3548	14.86508
	4학년	116	64.5000	14.74567
	합계	454	66.3436	14.41550

표 13. 학년 별 의사소통 불안 차이 Turkey 사후분석 결과

(I) 학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학년	2학년	4.78687*	1.82993	.045	.0681	9.5056
	3학년	6.25425*	2.00690	.010	1.0792	11.4294
	4학년	6.10909*	1.89603	.007	1.2199	10.9983

*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3. 논쟁 성향

1) 성별, 전공별 비교

〈표 14〉는 성별, 전공별 논쟁 성향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논쟁 성향 평균은 남학생이 3.18점으로 여학생(3.13점)보다 높고 전공별로는 공대생이 3.17점, 인문대생이 3.16점이다. 이러한 논쟁 성향의 성별, 전공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4. 성별, 전공별 논쟁 성향 정도의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성별	남학생	323	3.1814	.34743	1.431	.153
	여학생	131	3.1328	.27385	1.431	.15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공	공대생	323	3.1703	.34106	.293	.770
	인문대생	131	3.1603	.29579	.293	.770

성별에 따른 논쟁 성향 정도는 t값이 1.431, p=0.1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또한, 전공에 따른 논쟁 성향은 t값이 0.293, p=0.7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다. McCroskey, Richmond & Stewart(1986)(범기수 외, 2008: 58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자기 주장적이라고 주

장하며 자기 주장성¹⁷을 남성적 특성이라고 규정하였다.

2) 학년별 비교

표 15. 학년별 논쟁 성향 정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학년	평균	N	표준편차
1학년	3.1455	110	.34552
2학년	3.1519	135	.29061
3학년	3.1366	93	.32863
4학년	3.2310	116	.34802
합계	3.1674	454	.32834

학년별 논쟁 성향 차이는 <표 15>와 같다. 학년별 논쟁 성향은 4학년이 3.23점으로 가장 높다. 이러한 학년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113으로 학년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4. 언어적 공격 성향

1) 성별, 전공별 비교

<표 16>은 성별, 전공별 언어적 공격 성향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표 16. 성별, 전공별 언어적 공격 성향 정도의 기술통계 및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성별	남학생	323	3.0895	.34723	2.398	.017
	여학생	131	3.0031	.34971		

17 자기 주장성(assertiveness)은 논쟁 성향의 상위 개념으로 반응성(responsiveness)와 더불어 개인의 사회-소통적 스타일 & 성향(socio-communication style & orientation)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Richmond & McCroskey, 1990). 비교 문화적 관점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인이 백인보다 덜 자기 주장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공	공대생	323	3.0588	.34660	-.546	.585
	인문대생	131	3.0786	.35842		

언어적 공격 성향 평균은 남학생이 3.08점으로 여학생(3.00점)보다 높고 전공별로는 공대생이 3.05점, 인문대생이 3.07점으로 공대생이 낮다. 이러한 언어적 공격 성향의 성별, 전공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언어적 공격 성향 정도는 t값이 2.398, $p = 0.01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반면 전공에 따른 언어적 공격 성향은 t값이 -0.546 , $p = 0.58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2) 학년별 비교

학년별 언어적 공격 성향의 차이는 <표 17>과 같다.

표 17. 학년별 언어적 공격 성향 정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학년	평균	N	표준편차
1학년	3.1209	110	.39841
2학년	3.0526	135	.34637
3학년	3.0333	93	.35488
4학년	3.0500	116	.29444
합계	3.0645	454	.34977

학년별로는 1학년이 3.12점으로 가장 높다. 이러한 학년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267로 학년 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18〉은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논쟁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표 18.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r	리더십 합계	의사소통 불안 합계	논쟁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
리더십_mean	1			
의사소통 불안_mean	-.512**	1		
논쟁성향_mean	.397**	-.271**	1	
공격_mean	.274**	-.047	.305**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첫째, 리더십과 의사소통 불안은 높은 부적 상관관계($r = -0.512$), 리더십과 논쟁 성향은 정적 상관관계($r = 0.397$), 리더십과 언어적 공격 성향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r = 0.27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먼저 리더십 역량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불안이 적다는 뜻으로 리더십이 의사소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스피치 역량이 리더십의 중요 변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논쟁 성향은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 개인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타인의 입장을 건설적으로 공격하거나 반박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성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시 리더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리더십과 언어적 공격 성향과의 약한 정적 상관관계이다. 언어적 공격 성향은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 지지를 위해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공격하는 성향이다. 논쟁 성향과 함께 공격 성향이라는 의미에서 리더십과의 약한 상관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사소통 불안과 논쟁 성향 간의 부적 상관관계(-0.271)가 확인되었다. 즉 의사소통 불안이 낮으면 논쟁 성향은 높다는 의미로 자신의 입장

을 잘 표명하는 논쟁 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불안은 낮아진다.

셋째, 논쟁 성향과 언어적 공격 성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0.305)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황순희(2013)의 결과($r=0.324$)와도 일치한다. 논쟁 성향과 언어적 공격 성향은 특정 이슈에 대한 공격적 성향임은 공통적이지만 건설적, 파괴적 성향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럼에도 상관관계를 갖는 원인과 교육적 처치에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관찰,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리더십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리더십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대학생의 리더십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며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았다. 세부 유형 중 인간관계기술은 1학년과 4학년, 자기이해기술 항목은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4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의사소통 불안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의사소통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반면 전공에 따른 차이는 그룹 상황에서만 공대생의 의사소통 불안이 낮았다. 또한, 대학생의 의사소통 불안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며 4학년이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4학년이 가장, 유의미하게 낮았다. 집단별로는 각각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셋째, 대학생의 논쟁 성향은 성별, 전공별,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넷째, 대학생의 언어적 공격 성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전공,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불안 차이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 대해 전공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점은 공과대학생을 위한 스피치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수자가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여섯째,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논쟁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신의 입장을 잘 표명하는 논쟁 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불안은 상대적으로 낮고, 리더십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쟁 성향과 언어적 공격 성향 간의 정적 상관관계 역시 확인되었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공과대학생 학습자 323명, 인문대생 13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공대생 학습자의 스피치 성향 및 특성과 관련된 제반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성격의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리더십과 스피치 관련 제반 변인에 대해 공대생, 인문대생의 전공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과대학생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한 소프트 스킬이 타전공생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배적인 의견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대생만을 위한 특화된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이 타전공생과 차별화되는 특성과 성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제반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리더십은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과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수업 모듈의 개발과 지속적인 정제, 타당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계형석(2008), 『관리자의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인력관리학과.
- 김보경(2006), 『호텔 중간관리자들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 특급 호텔 관리자의 리더십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외식산업경영전공.
- 김은주(2003), 「협동학습에서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2, 한국교육심리학회, pp. 215-232.
- 김정기·김달환(2008), 「대학생 이용자의 댓글 읽기와 쓰기 동기 및 만족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5(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pp. 5-47.
- 김지식(2011), 『리더십과 스피치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업인조직 지도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조직관리전공.
- 김지심·최금진·이종연(2010), 「공과대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른 의사소통 불안인식 분석 연구」, 『공학교육연구』, Vol.13 No.6, 한국공학교육학회, pp. 3-13.
- 김평원(2010), 『말하기 평가의 분석 모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박세환·허경호(2001), 「토론능력의 구성개념 및 척도의 타당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46(1), 한국언론학회, pp. 147-193.
- 박재현(2007), 「리더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본질 연구」, 『화법연구』, Vol.10, 한국화법학회, pp. 57-90.
- 범기수 외(2008), 『인간 커뮤니케이션, 비서구적 관점』, 공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김민선 지음].
- 범기수 외(2009), 「자기주장성과 스피치 교육의 효과: 스피치 능력과 스피치 불안감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vol.12, 한국소통학회, pp. 196-218.
- 변계영(2011), 『중간관리자가 자각하는 의사소통, 팔로어십, 리더십의 관계연구: 관계/과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인력관리학과.
- 서미경(2010),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화법연구』, Vol.17, 한국화법학회, pp. 137-167.
- 서영진·전은주(2010), 「고등학생의 공식적 말하기에 대한 불안 연구—화법 구성 요소와 말하기 불안의 상관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Vol.42, 청람어문교육학회, pp. 209-242.
- 손동윤(2007), 『리더십을 위한 의사소통 효과성의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조직인사전공.
- 안선경·허경호(2004), 「개인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Vol.48 No.2, 한국언론학회, pp. 321-345.
- 염영미(2005), 「중학생의 발표불안 관련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12 No.3,

- 한국청소년학회, pp. 347-361.
- 윤경미·김정섭(2008), 「대학생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성, 학년, 사고양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15 No.7, 한국청소년학회, pp. 319-345.
- 이병혜(2008), 「스피치 교육이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Vol.12, 한국화법학회, pp. 299-327.
- 이정순(2006), 「청소년 리더십 기술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Vol.20,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pp. 151-174.
- 이효영(2011), 『스피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등학생 대상 스피치 교육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장영임(2009), 『변혁적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업교육전공.
- 전인숙(2004), 『자기 조정 학습을 통한 스피치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진·최화열(2010),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불안감이 관광영어교육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Vol.28 No.4, 한국상품학회, pp. 1-9.
- 진성희·성은모(2010), 「공과계열 대학생을 위한 실천적 리더십 역량 분석: 기업체 경영진과 대학생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Vol.29 No.4, 한국직업교육학회, pp. 95-119.
-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주리·장혜순·이인희(2007), 「출판사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커뮤니케이션 불안감이 갈등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출판학연구』, No.53, 한국출판학회, pp. 399-431.
- 허선영(2012), 『초등 영재의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전공.
- 황미영(2009),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부산교육학연구』, Vol.22, 한국교육학회 부산지회, pp. 125-154.
- 황순희(2011), 「공학인 대상 ‘공적 말하기’ 강의내용 개발 연구(I):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을 중심으로」, 『수사학』 14집, 한국수사학회, pp. 127-165.
- _____(2012), 「공학인의 스피치 불안과 상관요소 분석: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기효능감, 스피치 능력을 중심으로」, 『수사학』 17집, 한국수사학회, pp. 199-223.
- _____(2013), 「공학인의 스피치 운영 능력과 상관요소 분석: 인구사회학적 변인, 의사소통 성향, 공학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수사학』 18집, 한국수사학회, pp. 199-230.
- Anderson, C. M. & Martin, M.(1999), “The Relationship of Argumentativeness and Verbal Aggressiveness to Cohesion, Consensus, and Satisfaction in Small Groups,” *Communication Reports*, 12-1, pp. 21-32.
- Ayres. J, & Hopf, T.(1993), 『말하기 불안, 어떻게 극복하는가?』, 전은주 옮김(2008), 서울:

한국문화사.

- Infante, D. A. & Gorden, W.(1985), "Superior's argumentativeness and verbal aggressiveness as predictors of subordinates' satisf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 pp. 117-125.
-
- _____(1989), "Argumentativeness and affirming communicator style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subordinates," *Communication Quarterly*, Volume 37, Issue 2, pp. 81-90.
- Infante, D. A. & Rancer, A. S.(1982), "A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 of argumenta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pp. 72-80.
- Infante, D. A. & Wigley, Ch. J.(1986), "Verbal aggressiveness: An interpersonal model and measure," *Communication Monographs*, 53, pp. 61-69.
- Infante, D. A. *et al.*,(2003), *Building Communication Theory*, 4th ed., Illinois: Waveland.
- Lee, W. & Lunsford, D.(2007), "Communication apprehension in undergraduate engineering students: The influence of the performing arts and related activities," Proceedings 2007 ASEE Conference, HW: ASEE, pp. 1-10.
- McCroskey, J. C.(1993), *An introduction to rhetorical communication* (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cCroskey, J. C., Booth-Butterfield, S. & Payne, S. K.(1989),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college students' retention and succe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ume 37, pp. 100-107.
- McCroskey, J. C. & McCroskey, L. L.(1988), "Self-report as an approach to measuri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5, pp. 108-113.
- Piirto, J.(2000), "Speech: an enhancement to (technical) writ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Vol.89, Issue 1, pp. 21-23.
- P'Rayan, A. & Shetty, R.T.(2008), "Developing engineer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by reducing their communication apprehens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World*, 4(20), Vol.7, pp. 1-24.
- Richmond, V. P. & McCroskey, J. C.(1985), *Communication: apprehension, avoidance and effectiveness*, Scottsdale, AZ: Gorsuch Scarisbrick.
-
- _____(1990), "Reliability and separation of factors on the assertiveness-responsiveness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Volume 67, Issue 2, pp. 449-450.
- Seat, E. *et al.*(2001), "Enabling engineering performance skills: a program to teach communication, leadership, and teamwork,"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Vol.90, Issue 1, pp. 7-12.

대학생의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의 관계 연구

황순희

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스피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리더십 역량과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두 가지 주요 변인인 의사소통 불안, 의사소통 성향을 각각 추출하여 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의사소통 성향 인식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리더십, 스피치를 포함한 소프트 스킬 교과목의 설계와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학생의 리더십과 스피치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아직 충분히 누적된 연구가 없으며 특히 공학인의 리더십과 스피치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대학생의 리더십은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 의사소통 불안은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 언어적 공격 성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반면 논쟁 성향은 성별, 전공별,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논쟁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핵심어 리더십, 의사소통 불안, 논쟁 성향, 언어적 공격 성향, 공학인, 상관 요소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hip and Speech Related Variables in College Students

Hwang, Soo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hip in college students and speech related variables such as communicative apprehension and communicative traits.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f domestic studies concerning the leadership and factors related to speech,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se relationship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323 engineering students and 131 humanities college students at P University. Findings showed that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in 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in communicative apprehension.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verbal aggressivenes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grade and major differences in argumentativeness. Besides, we found a high correlation among leadership, communicative apprehension and communicative traits. From these findings, it is needed to refine the instructive modules of speech as well as verify their validities.

KEYWORDS College Students, Leadership, Communicative Apprehension, Argumentativeness Trait, Verbal Aggressiveness Trait, Correlative Variables